



선정기준 무시 '최동원상'

두산 유희관에 ... '조건 충족' 양현종 2연속 수상 무산

두산 베어스의 좌완 유희관이 제2회 최동원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유희관은 12일 최동원 기념사업회 연 최동원상 선정위원회 결과, 심사위원 7명에게 총 21점을 획득했다. 유희관은 18점을 받은 '초대 수상자' 양현종(KIA 타이거즈)과 17점을 얻은 윤성환(삼성 라이온즈)을 제치고 수상자가 됐다. 유희관은 올 시즌 30경기에 등판해 18승 5패 평균자책점 3.94를 기록했다. 투수는 어우훈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 박영길 전 태평양 돌핀스 감독, 김성근 한화 이글스 감독, 김인식 프리미어 12 국가대표 감독, 양상문 LG 트윈스 감독, 천일평 OSEN 편집인, 허규연 MBC 해설위원 등 최동원상 선정위원 7명이 1위, 2위, 3위에 각각 후보자 이름을 적어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위 5점, 2위 3점, 3위 1점으로 계산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동원상 선정위원회가 제시했던 기준을 무시한 선정에 수상자 유희관이나 2연패에 실패한 양현종 모두 뒷맛이 개운치 않게 됐다. 선정위원회는 '최동원상' 기준으로 ▲180이닝 이상 ▲선발 30경기 이상 ▲150 탈삼진 이상 ▲클리어타트 15회 이상 ▲평균자책점 2.50을 제시했다. 양현종은 선발로 31경기에 나와 2.44의 평균자책점으로 184.1이닝을 소화하면서 15승 6패의 성적을 냈다.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의 클리어타트는 19차례 기록했고, 탈삼진은 157개를 뺐이내면서 올 시즌 최동원상 기준으로 제시한 항목을 모두 충족시킨 유일한 투수가 됐다. 2년 연속 수상이 유력했던 양현종은 시즌이 끝나기 전 '최동원상'에 관한 질문을 받아 "지난해 열렬결에 최동원상을 받아서 민망했다. 올 시즌에는 수상 기준을 채우자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도 받게 된다면 수상 기준을 채우고 멋있게 받자는 생각이었는데 목표를 이뤄서 다행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허울뿐인 기준'에 최고의 시즌을 보내며 KIA와 두산의 에이스로 맹활약한 양현종과 유희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선정위원회 결과를 전해들은 야구팬들도 당혹스럽다는 반응 일색이었다.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투수를 기리기 위해 마련한 '최동원상'은 제시했던 기준을 외면한 선정으로 권위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

MLB '강정호법' 만들어지나

메츠 테하다 종아리뼈 골절... '2루 충돌 방지' 논의될 듯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거친 슬라이딩으로 상대 야수에 큰 부상을 입힌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내야수 체이스 어틀리(37)에게 '다비전시리즈 3·4차전 출장 금지' 처분을 내렸다. MLB닷컴은 12일 "어틀리가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아 13일과 14일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리는 뉴욕 메츠와 내셔널리그 다비전시리즈 3·4차전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다. 어틀리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메츠와 다비전시리즈 2차전, 7회말 1사 1·3루에서 하위 런더의 2루 땅볼 때 2루 베이스 근처에서 거친 슬라이딩을 했다. 어틀리의 발이 2루 베이스를 커버하던 메츠 유격수 루벤 테하다의 종아리를 향했고 테하다는 오른 종아리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다. 어틀리는 경기 뒤 메츠 내야수 데이비드 라이트를 통해 테하다에게 사과하며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어틀리의 과격한 슬라이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결단을 내렸다. 조 토리 메이저리그 사무국 부사장은 "어틀리가 의도적으로 테하다를 공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수비 방면에 대해서도 심판진이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어틀리의 행동은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섰다. 메이저리그 규정 5.09(a)에 명시한 '야수 보호를 위한 행동'에도 어긋났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토리 부사장은 "내야수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SPN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은 테하다가 골절상을 당한 뒤 "부상을 야기하는 주자의 거친 2루 슬라이딩을 용인해야 하는가"라며 논쟁을 쏟아냈다. '공격적인 주루'를 선호하는 메이저리그에서는 병살을 방지하고자 야수의 발을 향해 슬라이딩하는 장면을 용인해왔다. 그러나 야수의 태클에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언론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부상이 계기가 됐다. 강정호는 9월 18일 시카고 컵스와 홈경기에서 크리스 코글란의 갑작한 슬라이딩에 왼쪽 무릎 내측 측부 인대 및 반월판 파열, 정강이뼈 골절이 겹친 큰 부상을 당했다. 주목도가 높은 포스트시즌 경기에서 테하다가 비슷한 상황에서 부상을 당하자 미국 언론은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메이저리그는 2014년부터 '홈 플레이트 충돌 방지법'을 발표했다. 이후 홈 플레이트 근처에서 주자와 포수가 충돌하는 장면은 줄었다. 한 달 사이, 강정호와 테하다가 2루 베이스 앞에서 주자의 스파이크에 쓰러졌다. '강정호 법' 혹은 '테하다 법'으로 불릴 '2루 베이스 충돌 방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합뉴스



"1승, 한 타석의 소중함 알았다"

감독과 타율 '0.250' 내기서 진 KIA 루키 박찬호

25경기 0.133... 마지막 2경기 실책 3개
1군 출전 행복했지만 실력 들롱나 창피
무휴일 캠프 최선... 감독님 믿음에 보답

시즌 막바지 KIA 팬들에게는 고졸 2년차 내야수 박찬호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다. 재치있는 수비 실력을 엿보는 재미가 있었고, 김기태 감독과의 내기 결과를 점치는 재미가 있었다. 박찬호는 시즌 23경기를 넘겨주고 김기태 감독과 '타율 0.250'을 놓고 내기를 했다. 목표한 타율을 채우면 김기태 감독이 상금 100만원을 주는 조건이었다. 물론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벌칙이 있었다. '무휴일 마무리 캠프'가 그것이었다. 목표 타율과 벌칙 모두 박찬호가 정한 것이었다. 결과는 계산을 해보기도 민망한 타율로 김기태 감독의 승리로 끝났다. 박찬호가 올 시즌 150타석에서 기록한 안타는 25개. 137타수 25안타로 올 시즌 타율은 0.183이다. 약속된 기간의 타율은 더 내려간다. 30타수 4안타, 0.133의 타율이 박찬호가 내어놓은 결과물이다. 설상가상 시즌 마지막 두 경기에서는 3개의 실책까지 적었다. 패기 넘쳤던 모습에 비하면 씁스러운 마무리였다. 박찬호는 "내가 잘 막았으면 팀이 삼성전에서도 이길 수 있었는데 집중력이 부족했다. 나 때문에 팀이 저서 웃을 수가 없었다. 5강 싸움을 하다가 떨어지니 진짜 허탈하고 집중이 잘 안 됐다. 5강의 끝이 하루 만에 한 경기 만에 무너졌다. 더 차분하게 해야 했는데 마무리가 좋지 못해서 팀에 죄송하고 창피하다. 그래도 올 시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더 열심히 해야한다는 것도 배웠다. 1승, 한 경기, 한 타석이 얼마나 소중한 지에 대해서

도 안 시즌이다"고 말했다. 가을잔치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박찬호에게는 꿈꿔왔던 시즌이었다. 김기태 감독은 천방지축 박찬호에게 마음껏 뛰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박찬호는 "행복했다. 내가 언제부터 1군 선수였다. 1군에서 경기를 하고 뛰면서 꿈꾸었던 것을 이뤘다. 꿈은 이뤄지만 내년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올 시즌 내 실력이 들롱났다. 지금은 수비 밖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 캠프에서 정말 열심히 타격 훈련을 하겠다. 2년을 경험했는데 내년에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이다"며 "감독님에게 정말 감사하다.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다. 내기는 졌지만 감독님의 관심과 믿음이 있어서 1군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찬호의 반성과 성찰로 끝날 일은 아니다. 약속은 지키는 김기태 감독이다. 시즌 최종전이 열린 날 스승과 제자는 약속했던 '무휴일 마무리 캠프'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 "감독님이 다 해주시는 거냐?"는 제자와 "감독도 쉬어야 한다. 6시간 훈련 이런 것 잡으면 안 된다"는 스승. 김기태 감독은 박찬호에게 마무리 캠프 휴식일 스케줄을 스스로 짜도록 했다. 박찬호는 훈련 파트너로 감독을 선택하겠다고 호기를 부렸고, 김기태 감독은 "나도 휴식이 필요하다. 매년 도와줄 수는 없지만 잘해보자. 가끔 밥이라도 사주라"며 웃음을 터트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두산 유희관

"끝낸다"

'느림의 미학' 유희관(29·두산 베어스)과 '외국인 에이스' 벤헨켈(36·넥센 히어로즈)이 2015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준PO) 3차전에서 선발 맞대결을 벌인다. 두산과 넥센은 12일 준PO 3차전 선발로 유희관과 벤헨켈의 등판을 예고했다. 5전 3승제 준PO 3차전은 13일 오후 6시30분부터 넥센의 안방인 목동구장에서 열린다. 홈 1·2차전 승리를 쓸어담은 두산은 이제 1승만 더하면 플레이오프에 올라 NC 다이노스와 한국시리즈 진출을 다툰다. 반면 2연패를 당해 벼랑 끝에 선 넥센은 남은 세 경기에서 모두 이겨야 '가을 야구'를 이어갈 수 있다. 시속 130km대의 직구를 가진 유희관은 칼날 제구로 올해 정규시즌에서 18승 5패, 평균자책점 3.94의 성적을 냈다. 다승 부



넥센 벤헨켈

"끝까지"

준PO 3차전 선발 격돌

문에서 NC 에릭 해커(19승 5패)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시즌 막판 다소 부진했던 유희관은 9일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한두 경기 좋지 않았지만 시즌 전체 기록은 무시할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다"면서 "가을 남자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올해 넥센전 성적은 썩 좋은 편이 아니다. 3경기에 등판해 1승 1패, 평균자책점 7.64를 기록했다. 특히 서건창(7타수 4안타 2타점)과 박병호(9타수 5안타 1홈런 2타점) 등 넥센의 주요 경계 대상들에게 약했다. 목동구장에서는 4월 22일 한 경기를 뛰었고, 6이닝 동안 홈런 두 방을 포함한 9안타를 얻어맞으며 6실점(5자책)했지만 타선의 도움으로 승리를 챙겼다. 벤헨켈은 넥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마운드에 오른다. 2012년부터 넥센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 무대에서 활약하

3경기 1승1패	상대 전적	5경기 2승1패
1경기 6실점	목동 성적	3경기 2승
7.64	평균자책점	3.10
서건창·박병호	전적	정수빈·허경민

야구 꿈나무 제전 타이거즈기 야구

오늘~16일 중학생
23일부터 고교야구
11월 9일부터 초등교

KIA 타이거즈가 광주·전남·북지역 야구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위해 'KIA 타이거즈기 야구대회'를 개최한다.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제9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가 열린다. 광주시야구협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호남지역의 야구 유망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 지역 야구 발전의 밑거름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새로 창단된 광양 진월중을 포함해 광주(동성·무등·진흥·충장중), 전남(여수·순천 이수·화순·나주 세지·광양 진월중), 전북(정읍 이평중) 등 지역 10개팀이 참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가린다. 대회 우승팀과 2·3위 팀에게는 트로피와 상장이 수여되며 참가하는 전 체팀에게는 야구장비가 증정 된다. 최우수선수상 등 개인상 10개 부문의 시상도 이뤄진다. 또 오는 23일부터는 제4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고교 야구대회가 열리며, 11월 9일부터는 제12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가 개최된다. /김여울기자 wool@